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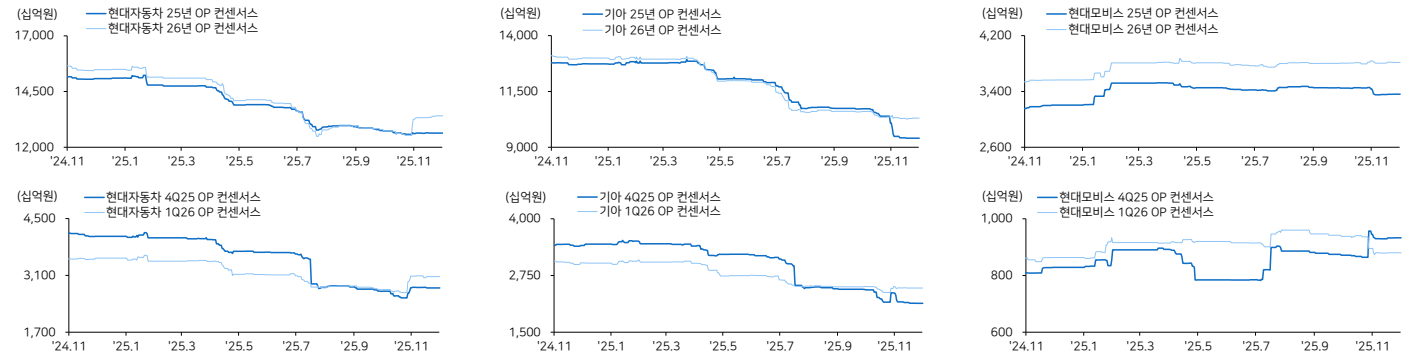
2025.12.10 (수)

자동차/모빌리티 Analyst 김준성 joonsung.kim@meritz.co.kr
RA 김아현 a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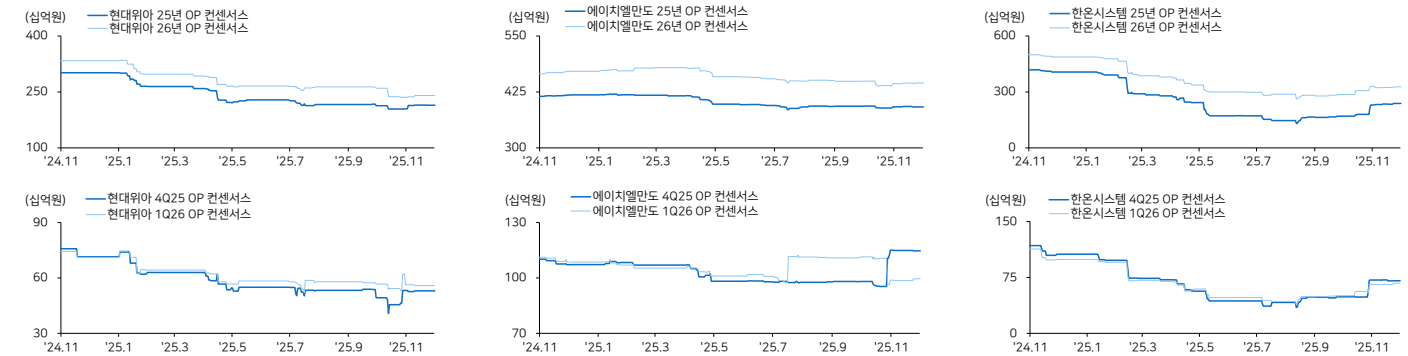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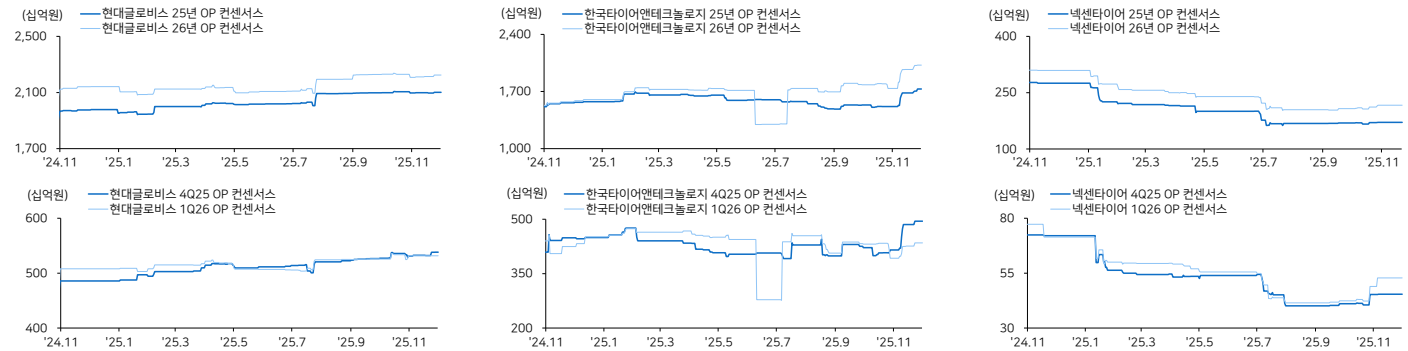
현대자동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현대글로비스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국내외 주요 뉴스

Mercedes, China's autonomous driving firm Momenta launch robotaxi service in Abu Dhabi (CnEVPost)

Mercedes와 Momenta, 아부다비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 위해 협력. 2026년부터 UAE Lumo 플랫폼 통해 운행 시작 예정. 이 로보택시는 차세대 Mercedes 기반에 Momenta의 AI 기술 활용. 이는 2017년 투자 이래 지속된 파트너십의 연장선
<https://han.gl/4um63>

Automakers' share of China NEV market in Nov: BYD leads with 23.2%, Tesla 5th with 5.5% (CnEVPost)

중국 NEV 시장, BYD가 11월 306,561대(점유율 23.2%) 판매하며 1위 유지, Geely(13.0%)가 2위 차지. Tesla는 10월 최저 실적 이후 11월 73,145대 판매하며 5위 재진입. NEV 시장은 BEV·PHEV 모두 생산하는 업체들이 선두 자리 유지
<https://han.gl/wd3IK>

테슬라 상하이 공장, 6년 만에 누적 생산 400만대 돌파 (글로벌이코노미)

상하이의 Tesla 조립공장 기가팩토리3, 가동 시작 6년 만인 올해 12월 누적 생산 400만 대 기록 달성. 2019년 말 가동된 기가팩토리3은 현재 연간 95만 대 이상의 생산 능력 확보.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에 500만 대 넘어설 것으로 예상
<https://han.gl/8ixXK>

현대차, 12월 10일 기준 3년 만에 성장세...연간 1000대 눈앞 (뉴시스)

현대차, 2022년 12월 재진출 후 처음으로 올해 연간 판매 1,000대 달성 유력. 11월까지 992대(+77% YoY) 판매하며 전동화 모델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 높일 전망. 다만 BYD 등 경쟁사의 중저가 전기차 공세 극복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
<https://han.gl/ATNCt>

전기차 캐슬 속 '호자' 중국...내년 후시장 승부처는 '하이브리드' (지피코리아)

EV 수요 정체와 고비용 구조 심화로 인해, 내년 자동차 시장 생존 열쇠는 HEV 모델 경쟁력에 달릴 전망. 내년 자동차 산업은 미 관세 정책 변화와 중국발 저가 공세라는 이중고 직면. 이에 국내 업계는 HEV와 BEV 이중 전략으로 대응할 계획
<https://han.gl/U1uMr>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구글 웨이모, 자율주행 택시 유료 운행 2대 증가 (한국경제)

Waymo의 로보택시 주간 유료 운행 횟수가 45만 건(+80% YTD)을 기록하며 Tesla와의 격차 확대 및 서비스 도시 범위 확대 중. CNBC는 이 지표를 들어 Waymo가 완전 무인 운행이 아닌 Tesla의 자율주행 서비스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평가
<https://han.gl/agWdw>

Xpeng Nov deliveries breakdown: Mona M03 remains strong, X9 surges (CnEVPost)

Xpeng, 11월 총 인도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Mona M03 세단 14,886대 인도로 15개월 연속 1만 대 이상 기록하며 최대 판매 모델(40.5%) 유지. X9 MPV-EREV 모델 출시 효과에 힘입어 3,234대(+161% MoM) 인도하며 모델별 순위 4위 기록
<https://han.gl/3bvi>

현대차, 11월 중 2만대 판매...올해 20만대 달성 기대감! (덕무루)

배이징현대, 지난 11월 2만 1대 판매(+21% YoY)하며 두 달 연속 월간 2만 대 돌파 및 연말 누적 20만 대 달성 예상. 판매 부진이 감친 탓으로 운영 비용 부담이 높아진 결과. 대신 AI 자동충전로봇 실증 및 E-pit 확대 등 충전 경험 혁신에 집중 계획
<https://han.gl/uX43F>

현대차 '충전대행' 4년 만에 종료...자율주행로봇 등 기술 혁신 집중 (서울경제)

현대차, 전기차 고객의 충전 편의를 위해 2021년 도입했던 '픽업 앤 충전' 서비스 올해 말 종료. 이는 충전 인프라 확대와 수요 부진이 감친 탓으로 운영 비용 부담이 높아진 결과. 대신 AI 자동충전로봇 실증 및 E-pit 확대 등 충전 경험 혁신에 집중 계획
<https://han.gl/uX43F>

*안 산다리니 월 1천 대씩 팔려... 관세 장벽 없는 '한국', 재고pile로 전략하나 (Topiotree)

중국, 2040년까지 승용차 시장 판매 중 NEV 비중 높이고, 탄소 배출량 감축하여 글로벌 전기차 패권 공고히 할 전략. 글로벌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시장 주도 중인 중국, 국내 시장의 경쟁과 낮은 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한국 시장 핵심 타깃으로 공략 중
<https://han.gl/NRjGi>